

에스토니아 내 알코올 과다 소비를 줄이기 위한 세금 인상 및 기타 조치들

Martin Priede Estonian Business School Lecturer

주요내용

- ▶ 에스토니아 정부는 과도한 알코올 소비를 줄이고 정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금 인상 조치를 단행했으며, 이번 알코올 소비세 인상은 과거 점진적으로 인상하였던 것과는 대조적임.
- ▶ 2017년 7월부터 시행된 주류에 대한 내국소비세는 2016년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로, 이로 인해 에스토니아 소비자들은 이웃 국가인 라트비아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짐.
- ▶ 이번 주류에 대한 내국소비세 증가는 정부가 갑자기 세금을 인상할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.

1. 이슈 현황

▶ 에스토니아 정부는 과도한 주류 소비를 줄이고 정부 예산을 확대하기 위하여 세금 인상 조치를 단행함.

- 에스토니아 정부는 전격적으로 주류에 대한 '내국소비세(excise tax)' 인상 조치를 단행함
 - 이번 조치는 과거 점진적으로 관련 세금을 인상했던 것과는 대조적임.
 - 이번 이슈에서는 이번 주류 세금 인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.
- 사실, 유럽 국가들은 오랜 시간 동안 주류에 대해 내국소비세를 부과해 왔음.
 - 일반적으로 내국소비세는 알코올, 연료, 담배 등에 부과됨.
 - 알코올에 대한 내국소비세는 크게 맥주, 와인, 기타 알코올음료로 구분됨.
 - 내국소비세뿐만 아니라, 주류에는 '부가가치세(value added tax)'도 징수됨.
- 특히, 유럽 북부 지역에서는 도수가 높은 주류를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, 그 결과 조기사망, 교통사고 같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함.
 - 이에 에스토니아 정부는 주류 가격 인상을 통해 국민들이 이전보다 쉽게 주류를 구매하지 못하게

함으로써 이러한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함.

- 에스토니아 가정은 연간 가계지출의 2~3%를 주류 소비에 사용하고 있음.
 - 아이가 있는 가정의 경우, 알코올 소비가 더 적은 것으로 알려짐.

□ 한편, 에스토니아 정부 입장에서 내국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부예산을 늘리는 쉬운 방법임.

- 에스토니아 정부의 예산은 다른 유럽 국가보다 균형 잡혀 있음.
- 2016년 에스토니아 정부는 GDP의 0.3% 규모의 예산흑자를 달성하였음.
 - 에스토니아 정부는 큰 재정적자를 내지 않기 위한 정책을 시행함.

□ 내국소비세는 맥주 1헥토리터(=100리터) 당 혹은 실제 알코올음료 1헥토리터 당 알코올 함유량 1%에 따라 계산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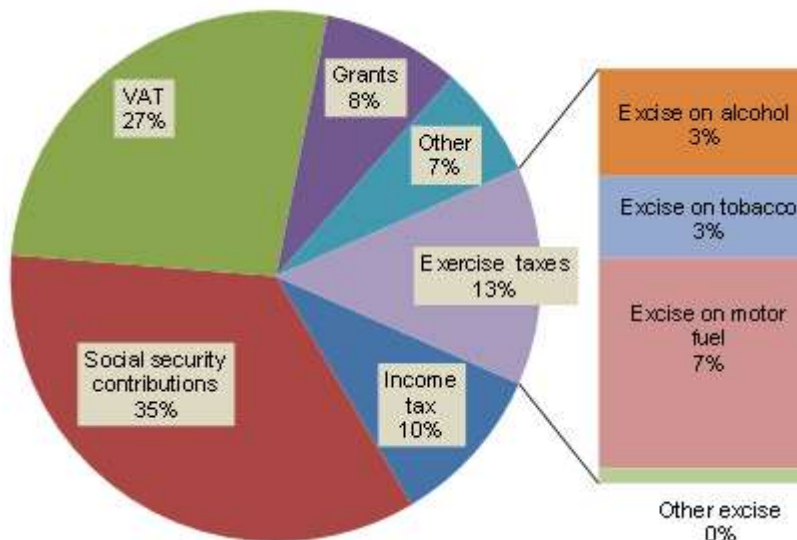
- 예를 들어, 2017년 중반 내국 소비세 인상 이후, 맥주 1헥토리터 당 1% 알코올 함유량 비용은 15.52 유로(약 2만 1,000원)임.
- 알코올 도수 6% 미만인 와인의 경우, 1헥토리터 당 91.30유로(약 12만 3,600원)임.

□ 유로 사용국으로서, 예산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정부의 우선 과제임.

- 에스토니아 정부 예산 수입 총액은 73억 유로(약 9조 8,803억 원)임.
- 2016년 내국소비세는 정부 예산의 13%를 차지하며, 이중 주류 내국소비세는 전체 내국소비세 중 26%인 2억 5,100만 유로(약 3,397억 2,097만)를 차지함([그림 1] 참고).

그림 1. 2016년 에스토니아 예산 수입의 세금 항목별 비중

(단위: 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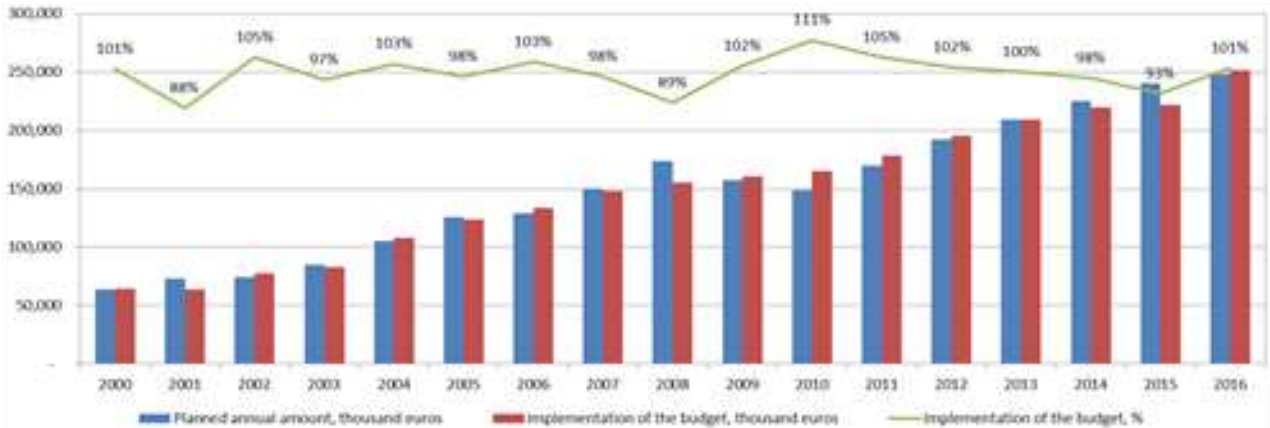
자료원 : 에스토니아 통계청

□ 내국소비세 세입은 꾸준히 증가해 왔음.

- 에스토니아 정부는 2008년 계획된 것 보다 낮은 세수를 거둔 이후, 2009~2013년 주류에 대한 내국소비세를 늘려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음.
- 반면, 2014~2015년 정부는 계획된 만큼 세수를 거두어들이지 못함(그림 2) 참고).

그림 2. 2016년 에스토니아 예산 수입의 세금 항목별 비중

(단위: 천 유로 / %)



자료원 : 에스토니아 통계청

주 : 청색 막대 - 계획된 세수액수(단위 : 천 유로), 적색 막대 - 집행 예산(단위 : 천 유로), 초록색 선 - 집행 예산 비율(단위 : %)

2. 원인과 분석

▶ 에스토니아 정부는 이른 내국소비세 인상 조치를 통해 정부예산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함.

□ 에스토니아 정부는 내국소비세를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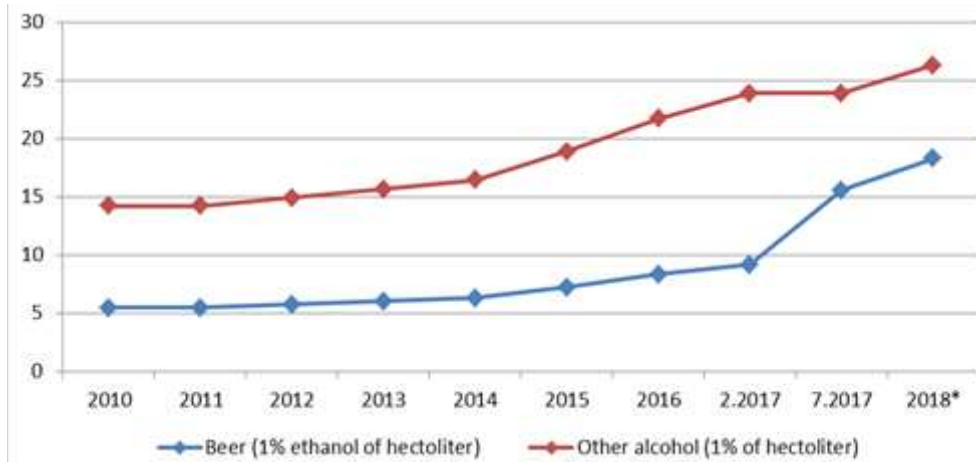
- 예를 들어, 알코올 내국 소비세는 맥주의 헥토리터에 대한 알코올 함유량 1%당 2016년 8.3 유로(약 1만 1,200원)에서 2017년 중반 15.52 유로(약 2만 1,000원)로 두 배 가량 증가함.
- 반면, 맥주에 대한 내국소비세 인상은 2010년 5.43 유로(약 7,340원)에서 2016년 8.3 유로(약 1만 1,200원)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짐.

□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, 알코올 도수 6% 미만의 와인에 대한 소비세는 1헥토리터 당 48.55 유로(약 6만 5,710원)에서 91.30 유로(약 12만 3,570원)로 늘어남.

- 6% 이상 알코올 도수가 높은 와인 소비세는 111.98 유로(약 15만 1,560원)에서 123.12 유로(약 16만 6,640원)로 증가함.
- 다른 주류에 대한 내국소비세는 헥토리터에 대한 알코올 함유량 1%당 21.72 유로(약 2만 9,400원)에서 23.89 유로(약 3만 9,100원)로 상승함(그림 3) 참고).

그림 3. 에스토니아 주류에 징수된 내국소비세 추이

(단위: 유로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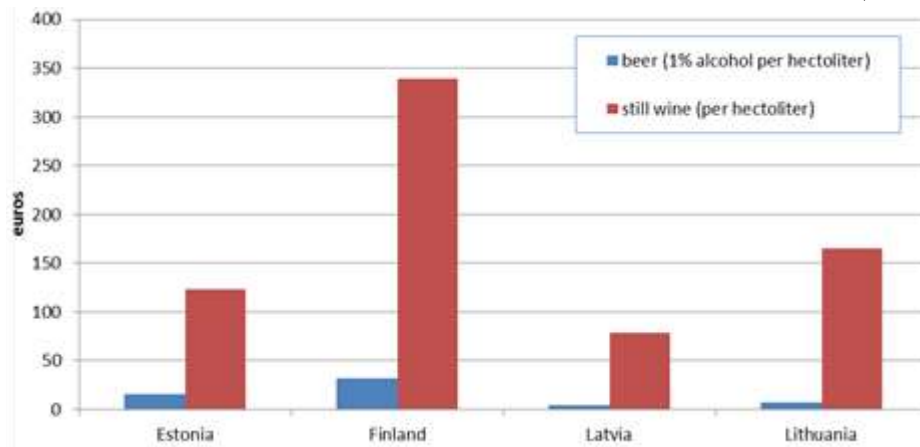
자료원 : 에스토니아 재무부

주 : 청색 선 - 맥주(헥토리터 중 알코올 1%당) / 적색 선 - 기타 주류(헥토리터당 1%)

- 2018년에는 관련 세금이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.
 - 예를 들어, 맥주의 헥토리터에 대한 알코올 함유량 1%당 내국소비세는 18.26 유로(약 2만 4,700원), 기타 알코올음료는 26.28 유로(약 3만 5,600원)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.
- 내국소비세 인상으로 인하여 500mL 맥주 가격은 2016년 1.09 유로(약 1,480원)에서 2017년 7월 1.29 유로(약 1,750원)로 상승함.
 - 500mL 맥주는 1.09 유로(약 1,480원)에서 2017년 2월 1.11 유로(약 1,500원)로 올랐으며, 다시 1.29 유로(약 1,750원)로 상승함.
 - 이러한 가격 상승은 내국소비세 인상에 따른 것이며, 내국소비세 증가는 올해와 내년 인플레이션 상승의 원인이 될 것임.
- 한편, 연간 60만 리터 이하를 생산하는 소규모 맥주 양조장의 경우, 내국 소비세가 반으로 감소함.
 - 이러한 조치는 소규모 양조장의 수와 다양성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됨.
- 한편, 라트비아와 국경을 접하는 에스토니아 도시의 주류 판매는 절반으로 급감함.
 - 특히, 도수가 높은 주류의 판매가 크게 감소하였으며, 맥주는 소폭 감소함.
 - 에스토니아에서 알코올을 구매하던 에스토니아인들과 핀란드인들이 내국소비세가 낮은 에스토니아-라트비아 국경 지역에서 주류를 구매한다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([그림 4] 참고).
 - 에스토니아, 핀란드, 라트비아는 부가가치세(VAT)에서도 차이를 보임.
 - 에스토니아의 부가가치세는 20%이며, 핀란드는 24%, 라트비아는 21%임.

그림 4. 2017년 7월 징수된 주류에 대한 내국소비세

(단위: 유로)



자료원 : 유럽위원회

주 : 에스토니아, 핀란드, 라트비아, 리투니아 순 / 청색 막대 - 맥주(헥토리터 중 알코올 1%당) / 적색 막대 - 스틸 와인(헥토리터 당)

- 에스토니아 정부는 라트비아로부터의 주류 공급이 7% 증가한 것으로 추정함.
 - 일부 에스토니아 주류 판매상은 새로운 시장 상황에 적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회사를 등록하고 아이나지(Ainazi), 발카(Valka) 등 국경 너머에서 주류 상점을 운영함.
 - 이러한 주류상점들은 핀란드인 고객을 많이 유치하고 있음.

3. 전망과 시사점

- ▶ 이번 주류에 대한 내국소비세 증가는 정부가 갑자기 세금을 인상할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.

- 에스토니아 정부의 내국 소비세 인상은 세금 인상으로 인한 정부 세수의 정체 혹은 감소를 설명하는 래퍼 곡선(The Laffer Curve)을 따르는 것으로 보임.
 - 세금을 적어도 단시간 내 크게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.
 - 위에서 살펴보았듯이, 에스토니아인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주류를 구매하고 있음.
 -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, 소비자들이 높은 세금에 적응할 것으로 전망됨.
- 제조사 입장에서 높은 세금은 주류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며, 제조사의 이익도 감소할 것임.
 - 이로 인해 일부 제조사들은 투자를 줄일 가능성도 있음.
 - 일례로, 에스토니아 주류기업인 A.르코크(A. le Coq)社は 매년 300~700만 유로(약 40억~94억 유로)를 투자했지만, 2017년에는 투자 규모를 100만 유로(약 13억 5,347만 원)로 축소함.

- 또한 내국소비세 시행에 대한 법적인 문제제기도 있었음.
 - 주류 제조사들은 내국소비세 인상에 반대하며 소비세 인상의 예측 불가능함에 대해 토로함.
 - 사정감독원장들도 대법원에서 내국 소비세 인상에 대해 논쟁한 바 있음.
 - 하지만 대법원은 급격한 세금 인상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함.


- 내국소비세 인상의 또다른 부정적인 결과는 소비자들이 이웃 국가로 주류를 구매한다는 것임.
 - 이러한 결과는 결국 소비와 부가가치세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임.
 - 에스토니아 수도인 탈린(Tallinn)에서 주류를 구매하던 핀란드 소비자들도 이웃 국가에서 알코올을 구매하는 상황임.

- 이러한 상황에서 라트비아 정부는 이러한 기회를 활용, 자국 내 내국소비세를 인상하려 할 것임.
 - 이럴 경우 국경을 넘어 주류를 구매하는 소비자의 수가 감소할 것이며, 에스토니아 세수에 대한 피해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.

- 결과적으로, 에스토니아 내국소비세 인상은 정부가 갑자기 세금을 인상하는 경우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.
 - 에스토니아 정부는 공동 시장 내 다른 정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음. **EMERiCs**

참고문헌

- "Estonian tax threat to Finns' booze cruises", <http://www.bbc.com/news/blogs-news-from-elsewhere-40174743>, BBC, 06.03.2017
- "Opinion: rise of alcohol market in Latvia is tied to higher excise tax in Estonia" <http://bnn-news.com/opinion-rise-of-alcohol-market-in-latvia-is-tied-to-higher-excise-tax-in-estonia-161460>, LETA, 06.03.2017
- "Second beer, cider excise duty hike of year to take effect Saturday", <http://news.err.ee/604624/second-beer-cider-excise-duty-hike-of-year-to-take-effect-saturday>
- Estonian Ministry of Finance, "Alkoholiaktsiis", <http://www.fin.ee/2022/>
- European Commission, "Taxes in Europe", database
- Riina Raudne, "Alkoholiaktsiisi tõus: selle mõju ja roll võimaliku eelarvelise katteallikana", Estonian Tax Payers Association, <http://www.maksumaksjad.ee/modules/smartsection/item.php?itemid=1704>
- Statistics Estonia, database
- Supreme Court: "Faster hike in alcohol excise duty not unconstitutional", <http://news.err.ee/605038/supreme-court-faster-hike-in-alcohol-excise-duty-not-unconstitutional>
- Tax and Customs Board of Estonia, "Rates of excise duty", <http://www.emta.ee/eng/business-client/excise-duties-assets-gambling/about-excise-duties/rates-excise-duty>

 알립니다

-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 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 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